“으음...”

음료수나 하나 마시려고 들린 학교 뒤쪽의 자판기. 그 옆에 있는 벤치에서 채아람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.

“거기서 뭐 해?”

“서, 선배? 깜짝이야. 언제 왔어요?”

채아람은 화들짝 놀라서 핸드폰 화면을 껐다. 뭘 보고 있었던 거지?

“왜 그래? 이상한 거라도 보고 있었어?”

“아니거든요~ 그냥 뭐 좀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.”

“무슨 고민이라도 있나 보네.”

“에이~ 고민까지는 아니에요.”

“네가 나한테 그게 고민이라고 했거든?”

“그, 그랬어요? 아무튼 고민은 아니에요.”

채아람은 말하기 싫어하는 눈치다. 억지로 들으려고 하는 것도 민폐겠지.

“그래? 그럼 말할 생각 들면 얘기해줘. 내가 의외로 도움 될 수도 있잖아.”

다시 자판기로 돌아가려는데, 채아람이 옷 뒤를 붙잡았다.

“...잠깐만요.”

“생각 바뀌었어?”

“으으…!! 진짜 이건 선배니까 얘기해주는 거예요?”

채아람은 잘못한 초등학생처럼 쭈뼛쭈뼛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.

“저 사실 이 춤 연습 중이에요.”

핸드폰 화면에는 어떤 여자 아이돌의 무대 영상이 틀어져 있었다.

곡의 댄스 부분인지 노래는 부르지 않지만, 춤만으로도 무대는 꽉 채워져 있다.

화려한 옷에 강렬한 움직임. 보는 것만으로 빠져드는 기분이 영상에서 전해진다.

“그런데 제가 하면 이 춤의 느낌과는 다르더라구요. 명확하게 설명하긴 힘든데, 어딘가 달랐어요.”

채아람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.

“아무래도 제 춤 실력이 부족한가 해서, 그걸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.”

“나는 잘 모르겠는데, 춤 때문에 느낌이 다른 건가?”

춤에 대해 빠삭하진 않지만, 내 기억에는 채아람이 춤 실력이 모자랄 것 같진 같은데.

영상에 나오던 아이돌도 대단하지만, 밤에 연습하던 채아람도 굉장했으니까.

그런데 느낌이 다르다면, 춤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.

춤이 아닌 다른 쪽.

예를 들자면….

1) 화장도구 – 인상의 차이

2) 인형 – 체형의 차이

3) 부드러운 옷감 – 패션의 차이